



장영은 성균관대 한국학연계전공 초빙교수*

1. 3.1운동의 주역들

3.1운동은 여성에게 어떠한 사건이었을까? 지금부터 1919년 이 땅의 여성들에게 3.1운동이 어떠한 가능성으로 다가왔는지를 검토하고 그 현재성을 고찰해보고자 한다. 남성 중심의 민족주의의 구도 안에서 3.1운동은 일어났지만, 1919년 이 땅에 살고 있었던 여성들은 분명 새로운 세상을 꿈꾸며 자신들의 이상을 가감 없이 펼쳤다. 민족 대표 33인이 모두 남성이었지만, 조선의 여성들 혹은 대한의 여성들은 3.1운동에 명운을 걸었다. 과연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유관순 이외에도 많은 여성들이 3.1운동의 한 가운데에 있었다. 그 시간을 거침없이 달렸던 몇몇 여성들의 삶을 되짚어보면서 3.1운동과 근대적 여성의 탄생이라는 주제를 생각해본다.

김성수의 아내로만 알려져 있는 이야주는 3.1운동의 주역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 1899년 평안북도 강계에서 태어난 이야주는 18세에 경성으로 유학을 온다. 그리고 정신여학교 졸업반이었던 1919년 3월 5일, 이야주는 30여명의 정신여학교 학생들을 이끌고 만세시위에 참여했다가 체포되어 기소되었다. “붉은 옷을 입힌 후에 죽 둘러안치더니 네가 소위 조선 여자이나? 네까짓 것들이 건방지게 웬 정치에 상관을 하느냐? 아직 조선 여자는 정치에 상관할 정도가 못 된다. 너희는 지금 겨우 가정이나 개량하고 자녀나 잘 양육하거라”¹⁾ 이야주는 “소위 조선 여자”가 어떠한 존재인지 “다시 생각하야도 이가 갈리는” 소리를 들으며 처절하게 깨닫게 된다. 3.1운동은 민족 운동의 차원을 넘어서서 여성들이 여성의 삶 자체를 근본적으로 고민하도록 만든 혁명적 사건

* 『나혜석, 글 쓰는 여자의 탄생』 『문학을 부수는 문학들』(공저) 『촛불의 눈으로 3.1운동을 보다』(공저)의 작가. 현재 성균관대학교 한국학연계전공 초빙교수에 재임 중임.

1) 이야주, 〈출옥자의 감상(2)〉, 《동아일보》, 1920년 4월 20일.

이었다. 서대문형무소에서 복역하다 1919년 8월 병보석으로 출감한 이아주는 같은 해 10월 3.1운동 가담 혐의로 6개월을 연도받았다. 다음 해인 1920년 경성복심법원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이아주는 수감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서대문형무소에서 이아주는 나혜석, 어윤희, 권애라, 신관빈, 심명철 등을 만나 1920년에 만세운동을 전국적으로 확대시킬 계획을 세우며 자신의 정치적 기질을 발견해갔다.

거리로 뛰어나와 세상을 향해 자신의 목소리를 외쳤더니 이전에 만날 수 없었던 멋진 여성들이 동지가 되어 있었다. 나이도 직업도 출신 지역도 학력도 이른바 집안도 새로운 세상을 꿈꾸는 여성들이 친구가 되는데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못했다. 이들은 오직 하나, 여성이 집 안이 아닌 집 밖에서 자신들의 몫을 제대로 찾아내야 한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었다. 이아주는 서대문형무소에서 멋진 친구들을 만나 더 큰 용기를 얻는다. 출감 후 이아주는 독립운동가 이전에 한 여성으로서 자신이 감옥에서 겪어야 했던 모멸감을 고백한다. 1920년 3월 가출옥한 이아주는 한달 뒤 동아일보에 〈출옥자의 감상〉을 발표했다.

이아주가 밝힌 것처럼, 형무소에서 겪은 가장 큰 치욕은 “조선 여자”를 향한 혐오였다. “겨우 가정이나 개량하고 자녀나 잘 양육하거라”는 말을 들은 이아주는 지금이야말로 여성이 정치에 “상관”해야 할 때라고 판단했다. 만세운동에 참여한 이래로 이아주는 언제나 같은 마음이었다. 판사가 “너희들이 만세를 부른다고 독립이 될 줄 아느냐?”라고 힐난했을 때, 이아주는 “언젠가는 꼭 될 줄 안다”²⁾라고 당당

하게 답했다. 그 독립은 이아주에게 여러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조국의 독립, 여성의 해방, 공화국의 탄생, 인권의 향상 등등이 이아주가 말한 진정한 독립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공판 과정에서 “다시는 이런 행동을 하지 않겠다”면 관대히 처분하겠다”는 재판관의 회유에도 이아주는 전혀 흔들리지 않았다. 이아주의 변호인은 김우영이었다. 김우영과 친분이 두터웠던 김성수는 친우의 변론을 지켜보러 갔다가 이아주의 당당함과 지성에 반했고, 그 인연으로 두 사람은 부부가 되었다. 이아주의 변호인 김우영은 이아주의 서대문형무소 동기이자 선배인 나혜석과 부부가 되었다. 서대문형무소 여옥사 8호 감방의 명단은 화려하다. 유관순, 이아주, 나혜석 이외에도 대륙을 넘나든 여성 운동가들이 그 곳에서 독립운동의 다음을 논의했다. 그 중 권애라도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뛰어난 여성이었다.

2. 서대문형무소 여옥사 8호 동지들

1897년 개성에서 태어나 1918년 이화학당 보육과를 졸업하고 권애라는 개성에서 유치원 교사로 근무하고 있었다. 3.1운동이 일어나자 권애라는 더 이상 유치원 교사로 살지 않기로 결심했다. 자신이 거주하고 있었던 개성 지역의 만세운동을 주도하다 권애라는 이내 체포되었다. 1902년생 유관순과는 선후배 사이였다. 하지만 권애라와 유관순 두 사람이 처음 만난 곳은 학교가 아니라 서대문형무소 여옥사 8호 감방이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8호 감방은 유관순, 권애라 이외에도 어윤희, 김향화 등 나이와

2) 김삼웅, 『서대문형무소 근현대사-일제시대 편』, 나남, 2006, p.119

출신 지역 및 직업을 달리하는 여성 독립 운동가들의 손발을 묶어두는 곳으로만 존재하지 않았다. 수감 생활 중에도 8호 감방의 여성 운동가들은 서로를 격려하며 미래를 함께 고민했다. 때로 치열한 토론이 벌어지기도 했다. 민족 해방과 계급 해방 그리고 여성 해방의 순위를 놓고 각자 정연한 논리를 펼치는 지식의 장으로 서대문형무소를 탈바꿈시켰다. 여성 운동가들을 온전히 가두어둘 수 있는 권력은 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았다. 권애라는 서대문형무소에서 만난 유관순과 특히 마음이 잘 맞았다.

3.1운동이 일시적인 시위로 간주되는 것을 우려한 권애라는 감옥 안에서 거사를 도모했다. 1920년 3월 1일 서대문형무소에서 권애라는 수감자들과 함께 만세운동을 일으킨다. 이때 후배이자 동료인 유관순은 모질고도 혹독한 고문을 당했고, 그 후유증으로 1920년 9월 사망했다. 다행히 권애라는 살아남아 독립운동을 이어나갔다.

권애라는 출옥 후 강연회의 스타로 활약하다 해외로 활동 범위를 넓혔다. 권애라는 쑤저우에서 새롭게 공부를 시작했다. 중국 유학 생활이 쉽지는 않았지만, 그 곳에서 권애라는 민족 해방의 범위와 시야를 더욱 넓힐 수 있었다. 쑤저우에서 공부를 마친 후 권애라는 러시아로 이동했다. 모스크바, 평텐, 지린, 헤이룽장 등지에서 권애라는 민족해방과 여성해방의 구체적인 방안들을 치열하게 연구하고 운동가들과의 네트워크를 점차 확장시켜갔다. 권애라는 이제 아시아의 차세대 지도자로도 전혀 손색이 없었다. 하지만 권애라의 삶에 역사는 크게 주목하지 않았다. 권애라는 고민했다. 과연 여성에게 조국이란 무엇인가? 권애라 뿐만이 아니었다. 버지니아 울프 역시 여성으로서 나는 조국을 원하지 않고, 여성인 나에게 조국은 없다고 절규하지 않았던가? 사실 그

명제는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다. 여성에게 조국이 없다는 사실에 통감하면서도 권애라는 자신의 조국을 외면할 수 없었다. 식민지의 여성 지식인이 짊어진 과제이기도 했다. 권애라의 결혼도 남달랐다.

의열단을 이끌었던 김시현은 약 28년 가까이 수감 생활을 한 독립운동가다. 김시현과 권애라는 서로를 동지로 부르며, 인생의 동반자가 되기로 했다. 하지만 세상은 권애라를 언제나 김시현의 아내로만 호명했다. 권애라는 개의치 않았다. 여성에게도 사상이 사랑의 조건임을 권애라는 자신의 삶을 통해 스스로 증명하고자 했다. 권애라는 1942년 중국 지린에서 12년 형을 선고받았다. 해방 후 출소한 권애라는 통일과 반독재투쟁을 위해 다시 운동가로 복귀했다. 이미 수많은 운동가들이 전향을 하고, 자신들의 삶을 스스로 챙기기 시작했지만 권애라는 이제 정말 자신이 꿈꾸는 세상을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왔다고 판단했다. 해방된 조국에서 무엇을 해야 할까 권애라는 고심했다. 오랫동안 품어왔던 자신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서라도 그 누구도 아닌 권애라 자신이 정치권력을 획득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 1967년 권애라는 경북 안동에서 한국독립당 후보로 국회의원에 도전했다. 결과는 낙선이었다. 권애라는 “독립통일 앞장섰던 한독당 몰아주자”라고 선거 구호를 외쳤다. 현실 정치의 벽은 높고도 두터웠다. 그렇다고 주저앉아 아무 것도 하지 않을 수는 없었다. 그 때부터 권애라는 3.1여성 동지회 결성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3.1운동이 여성에게 사회 참여의 기회를 조금이라도 부여할 수 있다면 또한 자신을 비롯한 3.1운동에 참여한 여성 운동가들이 역사에 기록되고 기억될 수 있다면 무엇이든 실행해야 한다고 믿었다. 그러나 자신의 삶을 한 평생 공적인 영역으로 확장시

키려 했던 권애라의 이상은 현실에서 결실을 맺지 못했다. 너무나 안타깝게도 권애라는 생애 말기 가난과 병마를 함께 견뎌내야 했다. 명예로운 말년을 보내야 했을 그녀에게 가혹한 시간이었다. 1973년 권애라는 세상을 떠났다. 1990년 권애라에게 애국장이 추서된 것은 다행이었지만, 그녀의 생애를 훈장 하나로 모두 설명할 수 있을까? 아마 권애라가 원하는 삶은 조금은 달랐을 것이다. 여성이 사회에 진출하고 정치에 참여하고 자신들의 몫을 당당하게 찾을 수 있었던 세상을 권애라는 꿈꾸지 않았을까? 사실 그러한 꿈은 권애라 한 사람만의 이야기가 아니었다. 권애라의 또 다른 서대문형무소 동기 어윤희 또한 눈부신 독립 운동가의 삶을 걸었다.

1881년생 어윤희는 1894년 결혼했다. 조혼이 별다른 사건이 아니었던 시절이었다. 결혼한 해 발발한 동학농민전쟁에 남편은 참전했고 전사했다. 가족을 모두 잃은 어윤희는 황해도의 여러 지역을 전전하다가 1909년 개성에 정착하게 된다. 그 곳에서 우연히 어윤희는 민족대표 33인 가운데 한 사람인 정춘수 전도사의 설교를 듣게 되었고, 크게 감화되어 같은 해 6월 미국 남감리회 선교사 겐블에게 세례를 받았다. 겐블은 어윤희의 가능성을 알아보고, 개성의 미리함 여학교로 진학을 추천한다. 미리함여학교 졸업 후에도 어윤희는 학업을 이어나갔다. 1915년 35세의 나이로 호수돈 여학교를 졸업했다. 언제나 동기들 가운데 나이가 많은 학생이었다. 그러나 늦게 배운 어윤희는 새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 누구보다 빨리 움직였다.

3.1운동이 일어나자 개성 지역에도 현황을 알리

는 선언서를 배포하고 적극 참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지만, 선언서 배포는 체포를 의미할 만큼 위험했고 사람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주저했다. 같은 지역에서 활동하며 친분을 쌓았던 권애라로부터 어윤희는 독립선언서에 관한 소식을 전해 들었고, 그 자리에서 어윤희는 자신이 선언서를 배포하겠다고 선언하며 바로 실천에 옮겼다. 약 80매의 선언서를 전달받은 어윤희는 개성 지역의 사람들에게 ‘조선독립선언서’를 외치면서 적극적으로 선언서를 배포했고, 이후 개성지역의 3.1운동이 인근 지역으로 확산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그러나 현장에서 체포된 어윤희는 보안법 위반으로 1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대문형무소에 수감된 어윤희는 유관순, 권애라, 김향화, 심명철 등을 만나 다음 만세운동을 준비했다. 다행히 1년 후 출옥한 어윤희는 여성 계몽운동을 자신의 사명으로 받아들인다. 어윤희는 근우회 결성과 운영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었고, 전도부인으로 문맹타파와 기독교 사상 전파를 위해 모든 것을 걸었다.

어윤희와 함께 선언서를 배포했던 심명철은 시각 장애인이었다. 미리함여학교의 시각 장애학생 심명철은 시력을 잃어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은 자신의 잘못이 아니지만, 다음 세대에게 빛을 보여주지 못하는 것은 스스로의 허물이라고 생각했던 여성이었다. 그러나 조선총독부는 심명철을 “정치변혁의 목적을 가지고 다수의 군중과 조선독립만세를 부르며 면내를 횡행하고 구 한국기를 흔들며 군중을 선동 만세를 부르며 순사파출소 부근까지 나가는 등 치안을 방해한 사실이 있는 자”³⁾로 규정하고, 그녀에게 징

3) http://theme.archives.go.kr/next/indy/viewIndyDetail.do?archivelid=0001351989&evntid=0034977547&evntdowngbn=Y&indprld=0000009550&actionType=det&flag=1&search_region=
심명철의 판결문은 위의 자료를 참조.

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어윤희는 서대문형무소에서 김향화라는 동지를 만나 여성운동과 독립운동이 근대교육을 받은 지식인들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된다. 김향화는 수원에서 활동하고 있었던 기생이었다.

3.1운동에 참여한 여성들의 직업은 다양했다. 학생, 전도부인, 교사, 간호사, 주부, 기생 등등 직업과 나이와 계층 등은 전혀 중요하지 않았다. 여성들은 처음으로 자신들의 목소리를 공적인 영역에서 발화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그 가운데 서대문형무소 여옥사 8호에 수감된 김향화는 3.1운동 당시 수원기생조합을 이끌었던 3.1운동의 주역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 사상기생이라는 표현이 있을 정도로 당시 기생들의 지적수준과 사회참여도는 상당히 높았다. 기생들은 조합에 소속되어 조합 활동을 했는데, 이 기생조합이 3.1운동 당시 매우 중요한 조직으로 큰 역할을 했다. 수원 기생조합의 김향화 뿐만이 아니라 진주 기생조합을 이끌었던 박금향 등은 모두 3.1운동의 주역들이었다.

서대문형무소 여옥사 8호 수감자는 아니었지만, 해주의 기생 조합 또한 눈부시다. 이들은 3.1운동이 민족운동을 넘어서서 여성해방운동의 첫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간파했다. 김월희, 문월선, 김용선, 문재민, 옥운경은 기생결사대를 조직하여 “남자의 힘을 빌지 않고 서로 합심동체가 되어 독립운동의 투사가 되자”는 의미심장한 다짐을 했다. 해주의 기생결사대는 남자들이 쓴 선언문을 전달받아 배포하는 일을 거부했다. 이들은 직접 독립 선언문을 쓰고 배포하며, 해주와 평양 일대의 독립운동을 확산시키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이들의 공헌을 누구보다 잘 파악하고 있었던 사람은 1919년 9월 경성 치안책임자로 부임한 치바 료오였다. 그는 “경성의 8

백명 기생들이 모두 독립투사와도 같다”라는 기록을 남기기도 했다. 그렇다면 여성해방과 민족해방을 동시에 꿈꾸었던 3.1운동의 주역들은 어떤 세상을 만들고 싶어 했을까? 또한 여성의 인권이 처참할 정도로 낮았던 식민지 조선에서 무엇을 위해 조국을 위해 싸웠던 것일까? 그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잠시 허구의 인물이지만, 여성의 독립운동 참여를 다각도에서 생각해볼 수 있게 해 준 드라마 〈미스터 션샤인〉의 여자 주인공들을 떠올려본다.

3. 쿠도 히나와 여성연대

역사 드라마에서 여성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경우는 너무도 드물다. 그래서일까? 〈미스터 션샤인〉에서 수많은 여성 주인공들이 각자의 생애를 이야기할 때 가슴이 벅찼다. 의병으로 활동한 여성 인물들이 여럿 나오지만, 그 가운데 쿠도 히나와 함안택은 식민지 시기 여성의 다채로운 입지를 알려주고 그들의 고민을 가늠하게 해주는 역할을 충실하게 해냈다.

쿠도 히나는 친일파의 딸이자 늙은 일본 부호의 아내이다. 늙은 일본 남자와 결혼을 시킨 것은 아버지 이완익이었다. 이완익은 외국어를 재빨리 익히고 국제 정세에 맞춰 자신의 삶을 설계하는 한편 조선을 팔아넘기기에 바쁜 사람이었다. 그는 이익을 위해서라면 하나 뿐인 딸도 일본 노인의 욕망과 교환할 수 있는 인물이다. 쿠도 히나는 어머니를 잃고 아버지의 간계로 원치 않은 결혼을 한 후 일본인이 된다. 일본인으로 살아가는 편이 자신에게 유리하다고 판단했다. 쿠도 히나의 남편은 갑자기 사망하고, 늙은 부호의 젊은 아내가 그를 살해했다는 소문이 떠돌지만 쿠도 히나는 개의치 않는다. 그리고 남편

의 유산을 가지고 조선으로 돌아온 쿠도 히나는 호텔 글로리의 주인이 된다.

쿠도 히나에게 호텔 글로리는 자신의 삶 전체이기도 했다. 고종이 커피를 마시러 오기도 하고, 몰락한 나라 조선의 양반과 부자들, 미국인과 일본 유학생 그리고 일본인들이 호텔 글로리에 투숙한다. 쿠도 히나는 언제나 돈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내세운다. 나라도 사랑도 정의도 우정도 모두 불투명하지만, 돈과 땅 그리고 집은 불변의 가치라는 사실을 그녀는 자신의 삶을 통해 체득했다. 독립 운동가들에 대한 냉소적인 시선도 감추지 않지만, 다른 한편 쿠도 히나는 고종의 밀사로 활약한다. 아버지에 대한 죄의식 때문에 쿠도 히나가 독립운동을 했다고 평가하는 시선도 있지만, 동의하기 어렵다.

쿠도 히나는 왜 은밀하게 독립운동을 도왔을까? 온갖 수모를 겪은 끝에 가질 수 있었던 호텔 글로리에 쿠도 히나는 왜 폭탄을 던졌을까? 여러 가지 이유를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성과 3.1운동이라는 주제를 놓고 본다면 쿠도 히나는 여성이 역사에 지분을 가질 수 있는 미래를 꿈꾸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전부라고 할 수 있는 글로리 호텔을 폭파시킬 수 있었을 것이다. 돈을 벌고, 이름을 얻었지만 쿠도 히나는 자신이 역사에서 어떠한 몫도 차지할 수 없게 될 것이라는 쓸쓸한 생각에 빠지게 된다. 식민지 조선의 남성들은 왜 독립운동에 모든 것을 걸고 있을까? 낮은 신분으로 감당할 수 없는 차별을 받으며 살아온 사람들은 왜 목숨을 걸고 의병이 되었을까? 쿠도 히나는 고민하기 시작한다. 여성들이 독립운동에 참가하지 않는다면 세상이 어떻게 바뀔지라도 여성들의 사회적 지위는 똑같은 것이라

는 사실을 내다보게 된 것이다. 쿠도 히나 뿐만이 아니었다.

3.1운동에 참여한 여성들은 식민지 조선의 독립만을 혹은 대한제국이라는 새로운 공화국의 실현만을 염두에 두고 만세를 부르지 않았다. 여성이 처음으로 자기 목소리를 당당하고 크게 낼 수 있는 시기가 왔다. 여성이 최초로 여성들의 조직을 꾸릴 수 있는 경험을 하게 된 것이다. 3.1운동에 참여한 여성 가운데 학생과 교사 및 종교인이 압도적으로 많았던 이유는 그들이 연대할 수 있는 조직을 확보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3.1운동의 전사라고 할 수 있는 1919년 2월 도쿄 학생운동에 참가했던 여성들은 “역사에 참여하고 싶으면, 의무를 이행해야 권리를 찾을 수 있다.”는 결의를 다진다.⁴⁾ 2.8운동과 3.1운동 모두 민족적인 대의로 움직였지만, 한 민족의 일원이자 시민으로서 또 국민으로서 여성의 이름을 역사에 올리고 싶다면 여성들이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는 현실 인식이 식민지 시기 여성들을 세상으로 나오게 했다. 이제 우리도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왔다라고 판단한 여성들이 등장한 한국 역사상 최초였다. 그리고 여성들은 서로 연대하기 시작한다. 그 연대의 중심에 도쿄여자유학생회와 이화학당 그리고 서대문형무소 여옥사 8호가 있었던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도쿄에서 유학 생활을 했던 김마리아, 나혜석, 황신덕, 황애덕 등은 여자 유학생들의 친목을 도모하고 잡지를 발간하는 한편 식민지 조선의 독립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 자주 논의했다. 도쿄에서 유학 중이던 남자 유학생들의 친목회가 생기자 여자 유학생들은 이들과 함께 조직적으로 독립운동

4) 이와 관련해서는 장영은, 『촛불의 눈으로 3.1운동을 보다』, 창비, 2019, pp. 27-28 참조.

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실행에 옮긴다. 도쿄에서 독립선언을 한 다음, 경성에서 독립선언을 이어간다면 분명 파급 효과가 클 것이라고 생각했다. 1919년 2월 8일 도쿄에서 독립선언을 시도한 후, 김마리아는 선언서를 기모노 안에 숨긴 채 조선으로 입국한다. 3.1운동이 고종의 석연치 않은 죽음으로 촉발된 것은 진실이었지만, 그와 별도로 수많은 운동가들이 독립선언을 이전부터 준비하고 있었다는 역사적 사실 또한 간과할 수 없다. 귀국 후, 김마리아와 나혜석, 황신덕, 황애덕은 자신들의 교우 관계를 총동원해서 독립운동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킬 계획을 세운다. 1919년 당시 이화학당 교사로 재직 중이었던 박인덕의 기숙사에서 나혜석은 김마리아, 안병숙 등과 각자의 역할을 분담한다. 박인덕은 자서전에서 3.1운동을 자신에게 큰 영향을 끼친 사건으로 회고하며 당시의 상황을 기록한 바 있다.⁵⁾

김마리아는 2.8운동과 3.1운동의 주동자로 체포되어 잔혹한 고문으로 큰 병을 얻었지만, 출옥 후 대한애국부인회를 결성하고 국제적인 차원에서 독립운동을 확장시켜 나갔다.⁶⁾ 3.1운동은 여성들이 더 이상 남성들의 조직 아래에서 보조 역할을 하며 민족 운동에 기여해야 한다는 봉건적 사고에서 탈피하게 한 분기점이었다. 여성 지식인들이 유학생 모임을 비롯해서 다양한 종교와 사상을 기반으로 한 여성 조직들을 만들기 시작한 것도 3.1운동 이후이다. 근우회도 3.1운동의 주역들이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여성운동단체였다. 여성이 사적인 공간에서 드러나지 않는 존재로 살았던 근대 이전과 달리 여성이 공적인 공간에서 사회적인 역할을 하며

여성들끼리 연대하는 면모를 거침없이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3.1운동은 여성사의 관점에서 분명 의미 있는 역사적 사건이었다. 하지만 모든 운동은 한계와 새로운 과제를 던져주며 그 현재성을 환기시킨다. 3.1운동 역시 예외가 아니었다. 최정숙과 최은희, 두 명의 경성여고보 학생 또한 우회적으로 많은 이야기를 들려준다.

4. 3.1운동과 여성의 미래

3.1운동 당시 경성여고보 학생으로 참여했다가 두 차례 체포된 최은희는 조선일보 기자로 활동하다가 건강 문제로 1930년대 초 퇴사한 후부터 해방 전까지 공식적인 사회 활동을 하지 않았다. 해방 후 최은희는 공적인 영역에서 재기를 시도했지만, 매번 실패했다. 여학교의 교장은 여자로 교체하자는 운동을 벌이기도 하고, 대한여자국민당 서울시 당수에 취임 후, 여성입각운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1952년 대한여자국민당이 임영신을 부통령 후보로 추대하자, 최은희는 임영신의 당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선거운동을 펼쳤다.⁷⁾ 임영신은 낙선했고, 이후 최은희는 4.19혁명 이후 민주당 정권이 들어서자 다시 한 번 여성입각운동을 추진한다. 1960년 11월 5일 조선일보에 최은희는 「여성도 대폭 등용하라: 장내각에 충고한다」를 발표하기도 했다. 박순천과 이태영을 장차관에 임명하라는 내용이었다. 최은희는 명예로운 시민 혁명 이후에 등장한 민주당 정권이 여성입각과 관련해서는 이승만 정권보다 오히려

5) 박인덕, 『구월 원송이』, 창비, 2007 참조

6) 박용옥, 『김마리아-나는 대한의 독립과 결혼하였다』, 홍성사, 2003, 전병무, 『김마리아-한국 항일여성운동계의 대모』, 역사공간, 2013 등을 참조

7) 이와 관련해서는 장영은, 『3.1운동과 감옥에 갇힌 여성 지식인들』, 『촛불의 눈으로 3.1운동을 보다』, 창비, 2019, pp.147-173 참조

더욱 후퇴하고 있음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최은희의 주장은 다시 한 번 외면당한다. 최은희는 현실 정치에 대한 개입이나 비판 대신 역사 서술로 방향 전환을 모색했다.

3.1운동 사건 사료 현상 모집에 응모하여 당선된 최은희는 해방 이후 처음으로 국가로부터 인정받는 경험을 하게 되며, 3.1운동을 비롯한 여성독립운동사 집필에 남은 인생 전체를 몰두한다. 특히 3.1운동에 큰 애착을 가지고, 최은희는 3.1운동 참가자 중 생존한 여성들과 정기적인 모임을 가질 뿐 아니라, 자신을 포함한 그 여성들을 '3.1 할머니'로 부르면서 기념공원 건립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기념공원은 최은희가 살아 있는 동안 건립되지 못했지만, 3.1운동의 역사를 공원 조성으로 역사화하려고 했던 그녀의 시도는 주목을 받았다. 하지만 최은희 자신이 원했던 만큼의 성과를 얻지 못하자 그녀는 다시 글쓰기로 역사를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최은희는 자서전 집필과 더불어 동시대를 함께 했던 여성 지식인들을 소개하는 평전을 출간한다.⁸⁾ '여성이 여성의 투쟁사를 수집'하고 집필하는 일을 최은희는 적극적으로 실천했고 그 의미를 자기 삶의 보람으로 느꼈다. 분명 최은희는 의미 있는 업적을 남겼다. 그러나 3.1운동을 여성의 관점에서 이야기하기 위해 한 가지 피할 수 없는 질문을 스스로에게도 던지게 된다.

과연 민족운동에 여성들이 얼마만큼이나 공헌했는가의 관점으로만 접근한다면, 3.1운동과 여성이라는 주제는 우리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던져주기 어렵지 않을까? 공헌사 혹은 보충사의 관점이 그 자체로 결함을 가지고 있거나 문제적이라는 이야기와

는 전혀 다르다. 1919년 식민지 조선의 여성들에게 과연 3.1운동이란 무엇인가? 이제 그 질문을 던져볼 때가 오지 않았는지 조심스럽게 생각해본다. 100년의 시간 동안 여성의 삶이 얼마나 앞으로 나아갔는지 또한 진지하게 논의해 볼 때가 온 것 같다.

식민지 조선은 과연 여성들에게 무엇을 기약할 수 있었을까? 앞에서 언급했던 여성들의 삶은 놀라울 정도로 독립운동에 헌신적이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삶을 걸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고 싶어 했다. 3.1운동 당시 최은희와 함께 체포된 경성여고보 학생 최정숙에게 판사는 참여 동기를 묻는다. 최정숙은 나라를 위해서라고 답했고, 판사는 너에게 나라는 조선을 뜻하는지 되물었다. 최정숙은 꼭 조선이라고만 할 수는 없으며 "정치를 하고 있는 나라"라는 참으로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다.⁹⁾

"정치를 하고 있는 나라"는 뭉이 없었던 사람들에게 뭉이 생기는 나라, 목소리를 내지 못했던 사람들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나라가 아닐까? 랑시에르의 이론을 빌리자면, 아무 것에도 참여하지 않는 이들 즉 아무런 뭉도 지니지 않는 이들이 공동체에 참여하고 존재를 드러내는 것이 정치이다.¹⁰⁾ 1919년 경성여고보 학생 최정숙이 이야기한 "정치를 하고 있는 나라"도 다르지 않았다. 최정숙은 식민지 조선이 잃어버린 주권을 찾는 것으로만 '정치'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을 것이다. 3.1운동이 2019년 대한민국에게 던져주고 있는 질문이기도 하다. "정치를 하고 있는 나라"에서 여성의 목소리와 여성의 뭉은 얼마나 달라지고 있는지 새삼 되짚어보게 된다.

8) 이와 관련해서는 최은희, 『최은희 전집1-5』, 조선일보사, 1991 참조

9) 최정숙의 심문조서와 관련해서는 『한민족독립운동사자료집 17: 삼일운동Ⅷ』, 국사편찬위원회, 1994

10) 자크 랑시에르, 진태원 옮김, 『불화-정치와 철학』, 길, 2015 참조

• 참고문헌 •

- 《동아일보》 『3.1운동 50주년 기념논집』, 동아일보사, 1969
- 《조선일보》 최은희, 『최은희 전집1-5』, 조선일보사, 1991
- 《한민족독립운동사자료집 17: 삼일운동Ⅶ》, 국사편찬위원회, 1994
- 3.1여성동지회, 『한국 여성 독립운동사 : 3·1 운동 60주년기념』, 1980
- 권보드래, 『3월 1일의 밤-폭력의 세기에 꾸는 평화의 꿈』, 돌베개, 2019
- 김삼웅, 『서대문형무소 근현대사-일제시대 편』, 나남, 2006
- 김정인, 『독립을 꿈꾸는 민주주의-민주주의 개념으로 독립운동을 새로 쓴다』, 책과함께, 2017
- 김정인, 『오늘과 마주한 3.1운동-민주주의의 눈으로 새롭게 읽다』, 책과함께, 2019
- 박인덕, 『구월 원숭이』, 창미, 2007
- 박용옥, 『한국 여성 항일운동사 연구』, 1997, 지식산업사
- 박용옥, 『한국 여성 근대화의 역사적 맥락』, 지식산업사, 2001
- 박용옥, 『김마리아-나는 대한의 독립과 결혼하였다』, 흥성사, 2003
- 박현호, 류준필 엮음, 『1919년 3월 1일에 묻다』, 성균관대출판부, 2009
- 전병무, 『김마리아-한국 항일여성운동계의 대모』, 역사공간, 2013
- 정요섭, 『한국여성운동사』, 일조각, 1982
- 장영은, 『촛불의 눈으로 3.1운동을 보다』, 창비, 2019
- 조한성, 『만세열전-3.1운동의 기획자들, 전달자들, 실행자들』, 생각정원, 2019
- 자크 랑시에르, 진태원 옮김, 『불화-정치와 철학』, 길, 2015
- 린 헌트, 조한욱 옮김, 『프랑스 혁명의 가족 로맨스』, 새물결, 1999